

유의 어휘관계와 문장의미 구성*

임 채 훈
(승실대학교)

<Abstract>

Yim Chae-Hun. Synonymy and Sentence Meaning Formation.
Korean Semantics 3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spect the function of lexical semantic relation at the level of sentence meaning. That is, the lexical semantic relations not only represent the semantic relations between words in lexicon, but also act as mechanism of sentence meaning formation.

This paper focuses on synonymy of lexical semantic relations. That is, I defines the semantic functions of synonymy as as mechanism of sentence meaning formation.

Consequently, it is turned out that antonymy have the following functions. 1) the rhetoric avoiding 2) the substitute 3) the emphasis 4) the semantic specification 5) the paraphrase and expatiation etc.

핵심어: 어휘의미관계(lexical semantic relation), 유의관계(synonymy), 문장의미(sentence meaning), 수사적 기피(rhetoric avoiding), 대용(substitute), 강조(emphasis), 의미 명세(semantic specification), 환언(paraphrase), 부연(expatiation)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9-332 -A00102).

1. 문제 제기

이 논문의 목적은 어휘부 지식 안에 존재하는 유의 어휘관계¹⁾가 문장의미의 생성과 해석에 있어 어떤 지위와 기능을 갖는지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즉 유의 어휘관계가 단순히 어휘부 안에 존재하는 단어들 간의 관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생성하고 해석하는 기제와 지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유의 어휘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 유의 어휘관계의 범주 설정과 판별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아니다.²⁾ 이 논문은 유의 어휘관계가 우리의 어휘부 지식 안에 존재한다고 전제하고³⁾ 그와 같은 지식을 우리의 언어생활 안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언어는 관계의 체계이며, 관계는 계열과 결합을 통해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계열과 결합은 관계의 체계를 이루는 근간이 된다. 기존의 어휘의미관계는 주로 계열 관계를 통해 제시되었다. 즉 어휘 간의 일대일 대응이 어휘의미관계의 어휘부 지식을 이룬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휘의미관계, 특히 유의관계가 문장의미 구성에 주요한 지식으로 활용된다고 본다. 유의 어휘관계가 학문적으로 정의되고 설정된 개념[linguistic knowledge]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언어지식[knowledge of language]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문장을 생성하고 해석하는 규칙, 즉 문법 지식이야만 한다. 이에 어휘의미관계, 특히 유의 어휘관계를 문장에서 계열이 아닌, 결합의 양상을

-
- 1) 'synonymy'를 동의관계로 번역할 것인지, 유의관계로 번역할 것인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결국 synonymy를 어떻게 보는지 그 관점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synonymy가 동일한 의미와 동일하지 않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동의관계보다는 유의관계가 더 적절한 용어라고 보고 이하 '유의관계'라는 용어를 쓴다.
 - 2) 최경봉(2010)에서는 계열적 의미관계인 어휘의미관계를 '화용적 맥락'과 연결 지어 설명하는 것이 의미의 표상과 저장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보면서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의미관계를 '확립된 의미관계'와 '문맥 조정에 의한 의미관계'로 분리하여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3) 무엇을 전제한다는 것은 그것이 현재 발화의 참, 거짓 여부와는 별개로 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은 유의 어휘관계가 무엇이나,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 논외로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통해 그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이는 문장 속에서 다양하게 공기하는 유의관계 어휘의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어휘의미론은 어휘의미 영역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졌다. 즉 어휘 층위에서의 관계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어휘들이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질료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휘의미는 당연히 문장의미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어휘의미론의 연구 성과가 문장의미론의 연구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문장의미론 연구 자체도 활발하지 못했지만, 어휘의미론의 연구 성과가 문장의미론 연구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휘의미론과 문장의미론은 서로 소통해야만 한다. 이 연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바는 어휘의미론과 문장의미론 간의 소통이다.

실제로 유의 어휘관계에 있는 어휘들이 다음과 같이 문장 안에서 공기하여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1) ㄱ. 자연을 관찰하는 눈은 삶을 바라보는 눈이다.

나. 가까운 친구나 선생님께 고민을 말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이 가라앉은 것처럼 기분이 차분해집니다.

ㄷ. 한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동의어와 예문에 나온 단어까지 살피다 보면 보는 양이 상당하겠죠?⁴⁾

(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유의 어휘관계에 있는 단어들어 문장 안에서 공기하여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관찰하다’와 ‘바라보다’, ‘말하다’와 ‘이야기하다’, ‘보다’와 ‘살피다’ 등은 동일한 지시가 가능한 유의관계 어휘라고 할 수 있다. 유의관계 어휘가 (1)과 같이 공기하는 예가 유의미한 수로 발견된다면 이들 어휘가 문장(의미) 형성과 관련하여 특정한 의미 기능을 하고 있으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더불어 (1)에서 동일한 어휘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고 유의어를 선택하여 표현한 것은 이들이 문장의미의 구현에 있어 좀 더 정밀한 의미 명세를 한다

4) 밑줄은 필자의 것이다. 이하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모든 예문은 <세종말뭉치> 자료에서 추출한 예임을 밝혀 둔다.

는 것을 보여준다. 유의어는 동일 지시의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유의어 간 세밀한 의미 차이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상이하게 실현되는 환경은 이들이 의미 명세에 있어 차이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1ㄷ)에서 ‘살피다’를 대신하여 ‘보다’가 실현될 수 있지만 ‘살피다’를 통해 ‘보다’가 지시할 수 없는, ‘두루두루 주의하여 자세히’ 본다는 의미를 명세할 수 있다.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구별하여 선택하는 능력은 문장력을 구성하는 주요한 능력 중의 하나일 것이다. 유의 어휘관계에 대한 지식은 이렇게 세밀한 문장 표현의 능력과도 상관을 갖는다.

이 논문은 (1)과 같은 현상에 주목하고 유의관계 어휘가 문장에서 쓰일 때 어떠한 의미 기능을 하는지 살피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의미 기능은 유의 어휘관계에 대한 지식이 단순히 어휘 간에 존재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문장을 생성하고 해석하는 데 활용하는 지식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논거가 될 것이다.

종래 많은 연구가 말뭉치에 기반하여 유의 어휘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러한 말뭉치 기반 연구가 유의 어휘관계 연구에서 활발했던 것은 공기관계에 의거하여 유의관계 어휘의 분포적 특징을 살피기 위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strong’과 ‘powerful’과 같은 단어가 유의 어휘관계에 있다고 하지만 ‘strong tea’는 가능해도 ‘powerful tea’는 불가능하다는 것에서 유의어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에서는 유의관계 어휘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공기관계를 살피기보다는 유의관계 어휘가 문장의미 형성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피기 위해 유의관계 어휘의 공기관계를 다룬다. 즉 유의관계 어휘가 문장 안에서 공기하여 쓰인 말뭉치를 추출하여 이들이 문장 안에서 공기하여 쓰일 때 어떤 의미 기능을 하는지 살필 것이다. 공기하는 유의관계 어휘의 용례를 살피는 이유는 유의어 단독으로 실현된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현상들이 공기할 때 더욱 뚜렷이 보이기 때문이다. 즉 유의관계 어휘가 공기하여 쓰인 경우는 이들이 갖는 상호작용을 분명하게 보일 수 있다.

2. 유의 어휘관계의 특징

2장에서는 유의 어휘관계의 특징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서 결국 유의 어휘관계는 문장(의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제임을 밝히겠다. 즉 유의 어휘관계는 순수하게 어휘부 지식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미 구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것을 보이 고자 한다.

2.1. 유의 어휘관계의 분류

유의 어휘관계의 특징에 따라 선행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여러 분류가 이루어졌다.

2.1.1. 어휘적, 명제적 유의관계

유의관계 어휘를 어휘적 유의관계(*lexical synonymy*)와 명제적 유의관계 (*propositional synonymy*)로 나눌 수 있다. 어휘적 유의관계는 주어진 문맥 안에서 상호대치가 가능한, 동일의미의 어휘 단위에서 유지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명제적 유의관계란 문장의 명제적 내용이 동일할 때 환언된 의미에 의해 설정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 ㄱ. Mary fed the cat.

ㄴ. The cat was fed by Mary

ㄷ. It was the cat that Mary fed. <Cann et al. (2000:9)>

(2)의 각 문장은 상호간 환언이 가능한, 명제적 차원에서의 유의관계이다.⁵⁾ 위의 분류는 유의관계가 어휘 간에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절 간에 존재 하는 것인가 그 관계 단위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휘적 유의

5) 물론 이 문장들이 화용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의미라고 볼 수도 있다.

관계가 단순히 어휘 간에 존재하는 관계가 아니라 위에서 말한 바대로 주어진 문맥이라는 조건을 민감하게 반영해야 한다면 결국 모든 유의관계는 명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다음 예를 보면,

- (3) ㄱ. 뒤돌아 볼 틈이 없다.
 ㄴ. 뒤돌아 볼 겨를이 없다.

(3)에서와 같이 ‘틈’과 ‘겨를’이 서로 대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어휘가 유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천시권·김종택(1996:140)). 즉 ‘틈’과 ‘겨를’은 어휘적 유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 ㄱ. 문 틈에 연필이 빠졌다.
 ㄴ. *문 겨를에 연필이 빠졌다.

그러나 (4)와 같이 ‘틈’과 ‘겨를’은 다른 문장에서는 대치될 수 없다. 결국 어떤 어휘가 서로 대치될 수 있고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은 문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어휘 간 의미 대응은 어휘 대 어휘로 직접 할 수 없고 문장에서 실현된 경우를 통해 살펴야 하므로 결국 어휘적 유의관계 역시 명제 차원의 동일성을 점검해야 한다.

2.1.2. 절대적, 인지적, 근사 유의관계

Cruse(1986)에서는 유의관계를 유사성(synonymity)의 척도(scale)에 따라 절대적(absolute), 인지적(cognitive), 근사(near) 유의관계로 나누었다. 절대적 유의관계는 두 개 이상의 어휘가 모든 문맥에서 완전히 대치될 수 있는 동일성을 보이는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언어의 본질을 고려할 때 절대적 유의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Cruse(1986:88)에서는 또한 인지적 유의관계를 다음과 같이 논리적으로 정의하였다.

- (5) 만약 (i) X와 Y가 통사적으로 동일하고, (ii) X를 포함하는 어떤 문법적 서술문

S가, X가 Y로 대체된다는 것만을 제외하고 S와 동일한 또 하나의 문장 S¹과 동등한 진리조건을 가지면, X는 Y의 인지적 동의어이다. (X is a cognitive synonym of Y if (i) X and Y are syntactically identical, and (ii) any grammatical declarative sentence S containing X has equivalent truth conditions to another S¹, which is identical to S except that X is replaced by Y.)

근사 유의관계⁶⁾는 두 어휘 간 의미 중첩이 존재하나 상호 함의가 불가능하고 어떤 문맥에서는 대조(contrast)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지적 유의관계와 구별된다고 보았다(Cruse(1986:285)).

(6) It wasn't foggy last Friday - just mis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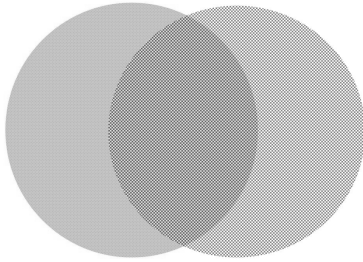
(6)에서 보는 것처럼, ‘foggy’와 ‘misty’는 의미적으로는 유사하나 ‘foggy’를 부정하고 ‘misty’를 긍정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의미의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러한 분류는 문장(의미) 차원에서 보면 어휘 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즉 어휘가 고유하게 절대적, 인지적, 근사 유의관계로 나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장 층위에서 어떤 어휘가 인지적 유의관계도, 근사 유의관계도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다.

2.2. 유의 어휘관계의 의미 중첩

유의관계 어휘의 특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Nida(1975); 조항범 역(1994:18))>.

6) Cruse(1986)에서는 이를 ‘plesionym’라고 했으나 Murphy(2003)에서는 ‘near-synonymy’라고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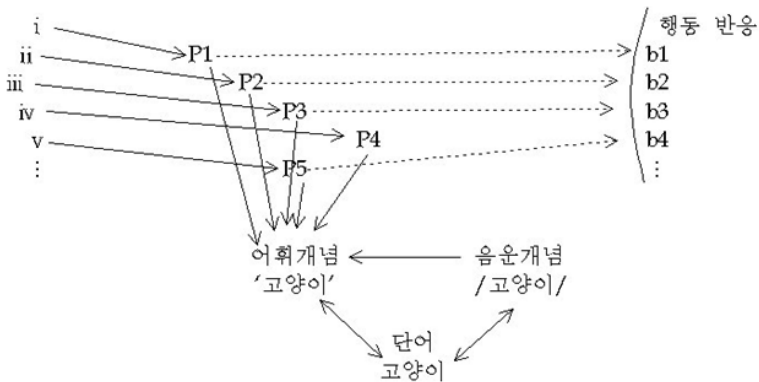
<그림 1> 유의관계 어휘의 의미 중첩

우리는 유의관계 어휘의 특징을 위의 그림과 같이 두 의미 개념이 중첩되는 부분과 중첩되지 않은 부분⁷⁾이 존재한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유의 어휘관계의 특징이 그림과 같다면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유의관계 어휘를 실제 발화상황에서 사용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다. (i) 중첩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사용하는 경우 (ii) 중첩되지 않은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경우. 앞서 유의어의 분류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유의관계 어휘는 문장에서 쓰일 때 대치가 가능한 경우와 대치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대치가 가능한 경우가 의미적인 중첩이 있는 경우라면 대치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의 쓰임은 의미적인 중첩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유의어가 문장에서 공기하거나 혹은 문장의 성분으로 선택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유의관계 어휘를 문장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때, 유의어의 의미 기능은 의미 중첩 여부와 관련하여 그 쓰임을 달리한다. 즉 유의관계 어휘가 중첩되는, 즉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특징을 바탕으로 문장에서 쓰일 수도 있고, 또 동일하지 않은 의미를 나타낸다는 특징을 바탕으로 문장에서 쓰일 수 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유의관계 어휘가 문장 의미의 생성과 해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필 것이다.

7) Nida(1975)에서는 의미 중첩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 (1) ㄱ. 매우 특정한 문맥과 관련된 유형
 - 나. 고정된 대조보다는 서로 다른 가능성과 관련된 유형
 - ㄷ. 정도(보통은 강도)와 관련된 유형

여기서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문장에서 생성되고 해석되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Bickerton(1995:21-27)에서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어휘의 의미를 떠올리거나 사용할 때 그것이 가지는 모든 속성을 다 그려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았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해당 어휘가 가지는 모든 속성을 다 활성화하기보다는 해당 자극에 맞는 소규모의 반응이 결합하여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그림 2> Bickerton(1995)의 단어와 사고 간의 관계 도식

예를 들어, “고양이가 매트 위에 앉아 있다(The cat sat on the mat)”라는 문장을 의미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이미지로 개념화시켰다고 하자. 이때 우리의 머릿속에 생성된 이미지에서 고양이의 모든 것이 그대로 생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고양이의 색깔, 무늬, 털의 모양 등 고양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극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의미만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즉 해당 어휘가 실현된 문장에서 필요한 의미만큼 활성화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Bickerton(1995)의 이러한 관점을 유의관계 어휘의 문장의미 생성과 해석에도 적용해 보고자 한다. Bickerton(1995)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문장에서 각 어휘는 그것이 가지는 모든 의미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활성화하게 된다. 유의관계 어휘도 그것이 가지는 모든 의미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활성화하게 된

다. 앞서 유의관계 어휘의 중첩 여부에 따라 유의관계 어휘의 의미 기능이 다르다고 하였는데, 이 관점을 적용하면 유의관계 어휘는 어떤 경우에는 중첩되지 않은 부분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중첩된 부분이 활성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유의관계 어휘가 어휘 차원에서 언제나 의미의 유사성 정도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서 활성화되는 의미에 따라 의미 중첩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유의관계에 의한 문장의미 형성과 의미 기능

유의 어휘관계가 문장의미를 생성하고 해석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유의 어휘관계가 가지는 특성과 범주가 무엇인지 좀 더 명확히 밝히고자 3장에서는 유의관계 어휘가 공기하는 말뭉치 자료를 검토하여 그 특성을 제시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유의관계의 특징은 의미 중첩에서 찾을 수 있다. 유의 어휘관계는 의미가 중첩되는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언중은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문장을 생성하고 해석하는 데 유의관계 어휘를 사용한다. 아래에서는 유의관계 어휘의 의미 중첩 여부를 바탕으로 이들 어휘가 문장의미 차원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3.1. 유의관계 어휘 간 중첩 의미에 초점을 둔 경우

유의관계 어휘는 중첩 의미에 초점을 둔 경우와 중첩되지 않은 의미에 초점을 둔 경우로 그 쓰임을 구분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중첩 의미에 초점을 두고 쓰인 경우를 살핀다.

3.1.1. 동일 어휘 반복의 수사적 기피(rhetoric avoiding)

동일 어휘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수사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 (7) ㄱ. 다양한 기념상품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는데 화장실을 다녀오고 이런저런 재미있는 것들을 구경하다 보니 가끔씩 어른

들이 어디에 있는지 놓치기도 했다.

- 나. 그동안 참으로 참피한 행동을 했던 내 스스로가 낮 뜨겁고 어디로든 숨어 버리고 싶었다.
- 디.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 동안 113을 유지하다가 지난달 111로 하락한 후 다시 떨어진 것이다.
- 리. 외국인 근로자들은 동일한 업체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한국인 근로자와의 임금은 차이가 난다.

(7)의 예를 보면, ‘보다’와 ‘구경하다’, ‘하락하다’와 ‘떨어지다’ 등이 어느 한 어휘로 실현되지 않고 다른 어휘로 각각 실현되었다. 두 어휘 중 하나를 중복하여 쓰거나 상호 교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경우 두 어휘는 동일한 의미를 지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예에서 유의관계 어휘가 이렇게 공기하여 쓰인 이유를 종래 수사적 표현의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중복 어휘 사용을 수사적으로 지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⁸⁾ 실제 글쓰기 관련 지도서에는 다음과 같이 동일 어휘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있다.

- (8) ㄱ. 공용배(2004:214) ; 동일한 의미로 끝나는 서술어를 연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글의 흐름을 단조롭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글의 호흡마저 짧게 하는 문제를 낳게 한다. 따라서 동일한 어휘나 어조사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예) 한국의 한옥은 하나의 작품이다. 선의 아름다움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작품이다.
→ 한국의 한옥은 하나의 작품이다. 선의 아름다움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예술 품과도 같다.

- 나. 배상복(2006:174-175) ; 문장이 같은 말로 끝나면 어색할 보일 뿐 아니라 글을 읽는 맛이 푹 떨어진다.

예) 그는 이 제도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사전에 철저한 분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지적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밝혔다).

8) 동일 어휘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유의어 공기 말뭉치와 언중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밝힐 계획을 갖고 있다.

ㄷ. 김상태(2008:82-83) ; ‘생각하다’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표현이 어색하다. 또한 ‘생각하다’와 ‘생각났다’가 반복되므로 앞의 단어를 ‘고민하다’로 고쳐 주면 의미적으로 잘 어울린다.

예) 공장 시간에 할 일이 없어 뭐 할까 생각하다가(→고민하다) 박물관이 생각났다.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 어휘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어색하거나 글의 흐름을 단조롭게 하고 글을 읽는 맛을 떨어뜨린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수사적 판단이 언어 내적인 제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와 관련된 학습에 의한 제약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이 동일 어휘가 실현되는 것을 지양하고 다른 어휘를 실현시키고자 할 때 의미적으로 분명한 중첩을 상정할 수 있는 유의관계 어휘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리가 유의 어휘관계 지식을 활용하는 분명한 경우 중의 하나로 이러한 수사적 기피에 의한 유의관계 어휘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동일 어휘의 수사적 기피에서 일정 정도 호응의 양상이 존재한다.

(9) 식량도 부족해지고, 먹는 물도 모자라 인류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9)의 경우 ‘부족하다’와 ‘모자라다’는 한자어-고유어 간의 유의 어휘관계인데 이러한 유의관계를 바탕으로 한자어와 고유어 어휘 간의 호응이라는 실현의 경향성이 존재한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제약관계는 아니고 표현상의 호응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도 수사적 기피가 드러나는 환경 중의 하나이다.9)

(10) ㄱ. 제가 문의한 내용은 주로 외국인 신분으로 뉴욕에서 몇 년 동안 월세로 살 수 있는 방을 구하는 방법을 묻는 글이었습니다.

ㄴ. 스노보드, 스키, 스케이트 등 겨울철 스포츠는 훌륭한 운동이다.

(11) ㄱ. 술을 마실 때에만 벗어 되는 친구, 혹은 도박을 즐겨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은가?

9) 상호 교체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를 반드시 수사적인 기피의 문제로 볼 수 없기도 하다.

- 나. 고구려나 백제는 군사적인 전쟁만이 아닌 종합적인 외교와 내치에 실패한 나라로서 국가 간 경쟁에서 진 패배자입니다.
- 다. XP 로그인 비밀번호 분실 시 쓰는 CHNTPW를 이용한 패스워드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10)은 “[XP N]_{NP}은 [XP N]_{NP}이다.” 구성을 가진 것으로 앞뒤 명사구가 동일한 것을 지시하게 되는데 이때 동일한 표현을 쓰는 것을 기피하면서 앞뒤 명사구를 구성하는 요소를 유의관계 어휘로 실현시킨 경우이다. ‘문의하다’와 ‘묻다’, ‘내용’과 ‘글’과 같이 유의관계 어휘라고 할 수 있는 어휘가 대응하는 명사구 구성에서 각각 실현되었다. (11)은 관형 구성이나 문장성분이 연속하여 나올 때 동일 어휘가 반복하여 나오는 것을 기피하여 유의관계 어휘가 실현된 예이다.

3.1.2. 대응을 하는 지시어의 기능

유의관계 어휘가 동일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지시어로서 사용될 수 있다.

- (12) ㄱ. 돈은 화폐를 담당하고 있는 조폐공사에서 생산해 한국은행을 거쳐 발행, 유통, 환수 과정을 거쳐 폐기됩니다.
- 나. 아무리 부자 국가라 하더라도 그 국민 중 소수만이 풍족함을 누리고 대다수 국민은 가난에 허덕인다면 그 나라는 여전히 후진국이다.

(12ㄱ)의 경우는 ‘돈은 그것들’과 같이 대명사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을 대체하여 유의관계 어휘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2나)의 경우는 ‘그’ 지시 관형사를 통해 앞에 있는 명사 ‘(부자) 국가’를 분명하게 지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 ‘그곳’이라는 대명사 대신 ‘그 나라’처럼 유의관계 어휘를 사용하여 대응을 할 수 있다.¹⁰⁾

10) 이 경우는 수사적 기피와의 구분이 명확치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도’와 같은 조사에 의해 동일 지시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이와 같은 용법으로 볼 수도 있다.

3.1.3. 강조의 의미

‘강조’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표현 방법이 존재한다.¹¹⁾ 그 중 동일 어휘의 반복으로도 강조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와 동일한 관점에서 유의관계 어휘를 중첩시켜 실현함으로써 반복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 (13) ㄱ. 가까운 친구나 선생님께 고민을 말하고 이야기하다보면 자신의 마음이 가라앉은 것처럼 기분이 차분해 집니다.
 - 나. 건강하고 튼튼한 이와 잇몸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 ㄴ. 세상이 다 똑같고 동일한 것대에서 움직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3)의 경우, ‘말하고 이야기하다’, ‘건강하고 튼튼한’은 유의관계에 있는 어휘로서 어느 하나를 생략해도 의미상 문제가 없다. 동일 어휘를 반복하거나 상호 대치하여도 의미상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은 의미 중첩의 차원에서 쓰인 경우이다.

글쓰기 관련 지도서에서는 동일 어휘 반복과 더불어 이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고 있다.

- (14) ㄱ. 배상복(2006:122) ; 내용의 중복이 없어야 한다.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면 문장이 늘어짐으로써 읽는 속도를 떨어뜨리고 지루한 느낌을 준다.
 - 예)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유가 상승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행복해지려면 우선 자신의 건강부터 먼저 신경 써야 한다.
 - 나. 고려대학교 사고와 표현 편찬위원회(2005:70) ;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어구

11) 장하늘(2009:234-240)에서는 우리말 강조의 기법으로 다음을 들고 있다.

- (1) 위치로 본 강조 (2) 연타식 강조 (3) 강조 표현의 명사로의 강조 (4) 단락의 분량으로나 독립 단락의 강조 (5) 글꼬리 표현에 의한 강조 (6) 이중부정으로의 강조 (7) 강조 부사에 의한 강조 (8) 반복에 의한 강조 (9) 표현 기교에 의한 강조 (10) 단락의 시작을 변화로이 하는 강조 (11) 문장부호로의 강조

이 중에서 반복에 의한 강조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 (1) 동의어로의 반복 (2) 유의어로의 반복 (3) 대비적 표현으로서의 반복

의 반복은 피하도록 한다. 같은 단어를 반복하거나 의미가 같은 단어를 중복해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언어생활에서도 경제성의 원리는 적용된다. 군더더기가 없어야 노력의 낭비를 줄이고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예) 이 같은 발상은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태도이다.

작문 능력과 관련하여서는 이들이 적절치 못한 표현일지 모르나, 역으로 이러한 예는 실제 한국어 언중의 유의관계 어휘 목록을 조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종래 유의관계를 변별하고 확인하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었는데¹²⁾ 이와 같이 두 어휘가 연속 표현으로 강조의 의미를 생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변별 검증의 방법으로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유의관계 어휘를 연결하여 쓰는 것이 동일어 반복에 의한 강조의 의미 용법과 유사하다고 본다면, 종래 유의관계 어휘의 설정 기준 중의 하나라고 보았던 품사 일치에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여지를 준다.

(15) ㄱ.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사람인지라 살아가면서 배워야 사람이 됩니다.

ㄴ. 천지의 도리는 남는 것을 덜어내 모자라는 데를 채우나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서 부족한 곳에서 덜어내어 남는 쪽에 갖다 바치나니.....

‘부족하다’는 형용사, ‘모자라다’는 동사로 품사 범주가 다르므로 이들을 유의관계 어휘로 볼 수 없으나¹³⁾ (15)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이 연속 표현으로 강조를 하는 유의관계 어휘의 의미 기능을 보인다면 이들은 우리의 어휘부 지식 안에서 유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앞서 수사적 기피의 용법 안에서도 위의 표현들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들 어휘가 유의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용법을 ‘강조’가 아니라 부정적인 관점에서 ‘중언부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언부언이란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을 말

12)Ullmann(1962:143-145)에서는 유의관계를 판별하는 방법으로 교체 검증(substitution test), 대립 검증(opposite test), 배열 검증(arrange test)을 들고 있다.

13)<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모두 이들을 다른 품사로 보고 유의어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

한다. 그런데 대개 증언부언은 동일한 말을 되풀이하기보다는 같은 내용의 말을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증언부언이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경제성에서는 문제가 될지 모르나 우리의 언어생활에서는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16) ㄱ. 마오는 김연아가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탓인지, 이내 밝은 표정을 되찾고 환한 얼굴로 관중들의 환호에 답례를 표시했다.
- ㄴ. 예전처럼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무병한 상태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중요시 여기는 요즘……

(16ㄱ)에서 보는 것처럼 ‘밝은 표정을 되찾고’와 ‘환한 얼굴로’는 같은 내용을 나타내는 말이다. (16ㄴ) 역시 ‘무병한 상태로’와 ‘건강하고’는 같은 내용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들이 상호 대체가능하고 어느 하나를 생략해도 뜻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은 의미 중첩에 기반을 둔 유의관계 어휘의 쓰임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오덕(2004:127)에서는 이와 같은 표현이 나타나는 이유의 하나로 다음을 들고 있다.

- (17) ㄱ.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힘을 길러 주는 것, 곧 공생의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 본다.
 - ㄴ. ‘더불어’와 ‘함께’는 같은 뜻으로 쓰는 말이다. 어려운 한자말을 쓸 때 흔히 접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말을 겹으로 썼다. 왜 이렇게 되는가? 그것은 어려운 한자말을 쓰면서 유식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글버릇이 그만 우리말을 하는(쓰는) 데서도 나타난 것이다. ‘함께’라는 말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더불어’는 글에서만 쓰는 말이다. 책만 읽고 글을 쓰는 사람들은, 입으로 하지 않는 말이어서 유식하게 느껴지는 ‘더불어’를 쓰고 싶어하지만, 그 말뜻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말이 아니기에 그 다음에 다시 ‘함께’를 덧붙이게 되는 것이다.
- 문제가 또 있다. ‘곧 공생의 능력을’ 어찌고 하는 뒷부분이다. 이것은 그 앞에서 쓴 ‘더불어 함께 사는 힘’과 같은 말이다. 왜 같은 말을 되풀이 했는가? 그 까닭은 쉬운 말로 쓴 것이 시시해 보이기에 다시 어려운 한자말로 바꿔 써서 유식한 글, 권위가 있는 글로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오덕(2004)의 견해는 이와 같은 유의관계 어휘의 출현이 한자어-고유어 간의 유의관계, 유식함과 권위에 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우리는 이러한 표현이 왜 언중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것인가, 이러한 표현을 통해 화자가 하고자 하는 의미 기능은 무엇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부연과 환언의 의미’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중언부언과 부연은 화자, 청자의 평가에 의해 달라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같은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3.1.4. 부연과 환언의 의미

부연이란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덧붙여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유의관계 어휘가 사전에서 정의의 과정에서 쓰이는 것처럼 이들이 문장에서 쓰일 때 부연이나 환언의 의미 기능을 가지고 사용된다. 대개 일반적인 발화상황에서는 정의보다는 부연이나 환언의 방식이 쓰인다.

부연이나 환언이 쓰이는 이유가 여럿 있을 수 있으나 그 중 하나로 선행하는 말 혹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쉽고 친숙한 어휘로 다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유의관계 어휘는 이렇게 어떤 내용이나 어떤 어휘를 좀 더 쉽게 다시 풀어 설명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18) ㄱ. 표면적으로 외계의 사물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투사(투사)된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자기애)라고 간주할 수 있다.

ㄴ. 원래 여가란 시간을 배우고 그냥 놀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즉 먹고살기 위해 바치는 그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시간을 의미한다.

앞서 의미가 중첩된 경우의 의미 기능으로 중언부언을 제시한 바 있다. 중언부언은 기본적으로 ‘부연’, ‘환언’과 동일한 의미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연’과 ‘환언’은 화자가 청자에게 익숙지 않은, 혹은 잘 모르는 어휘를 잘 아는 어휘로 환언하거나 더 쉽게 동일한 내용을 말한다는 점에서 잉여적인 표현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지만 제시된 표현을 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혹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어휘로 대체

하는 것이므로 잉여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가 없이 단순히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중언부언’이 되는 것이다.

앞서 이오석(2004)와 같이 많은 글쓰기 관련 지도서에서 이와 같은 표현이 비경제적 표현이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들은 분명한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단순히 동일한 표현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청자에게 더 정확히, 자세히, 확실히 설명하고자 하는 바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용법은 단어의 습득, 더불어 단어 의미의 습득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모국어 화자가 사건의 정의에 의해 단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제 발화를 통해 습득한다는 점에서 좀 더 쉽고 정확하게 단어(의미)를 습득하는 한 방법으로 이와 같은 용법이 존재해야만 한다. 언중은 이러한 유의관계의 실현을 통해 단어와 단어 의미를 습득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유의어휘관계를 통한 어휘 습득 양상을 우리는 김진해(2006:78)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19) “우리 인하, 참 영특하지.”라는 아빠의 말에 딸이 묻는다. “영특한 게 뭐예요?”
아빠가 대답한다. “영리하다고.” “영리한 게 뭐예요?” “응, 푹푹하다는 말이야.” “푹푹한 게 뭐예요?” “푹푹한 거야!” “그 말이 푹푹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어휘를 습득하는 방식이 사전적 정의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의관계 어휘에 의한 환언을 통해 습득될 수 있다는 것을 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3.2. 유의관계 어휘 간 비중첩 의미에 초점을 둔 경우

앞서와 달리 유의관계 어휘 간 의미적으로 중첩되지 않은 부분에 초점을 두고 문장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유의 어휘관계가 기본적으로 의미적인 중첩이 존재해야 성립하므로 당연히 중첩되는 의미 영역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선 경우와 다르게 이 경우는 상호 대치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의미가 중첩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며 이것이 초점이 되어 쓰이는 경우라 할 수 있다.

3.2.1. 의미 명세화

유의관계 어휘 간에 존재하는 의미적 차이가 의미의 정밀한 명세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 (20)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너무 많은 유혹에 노출돼 있으니까요. …… ‘도둑(thief)’이라는 말은 …… 너무 거창하고 너무 무겁고 너무 단정적인 말이죠. 미국에서는 ‘절도(larceny)’라는 말을 쓰지요. 중절도, 경절도, 이런 식으로요. 그 사이에 단계가 많아요. 내 생각에 풀은 경절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빌리는 것이라고 해도 될 만큼 작은 절도 말이죠.”

- J. M. 쿿시, <슬로우맨>, 들녘, 318쪽

(20)의 경우, 화자는 ‘도둑’과 ‘절도’가 같은 행위를 지시할 수 있는 유의관계 어휘라고 보지만 나름대로 그 의미를 변별하고 있다.¹⁴⁾ 이렇게 유의관계 어휘는 어떤 지시 대상의 세밀한 의미 차이를 나타내기 위한 의미 기능을 갖고 있다. 더불어 언중은 유의관계 어휘가 가지는 세밀한 의미 차이를 어휘 지식으로 갖고 있다.

- (21) ㄱ. 그림은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는 것은, 눈요기에 그칠 뿐이고, ‘그림을 읽는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교양을 동원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펼쳐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ㄴ. 운동이 움직인다는 광범위한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체육은 몸을 움직여 힘을 기르는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

14) 익명의 심사자의 말씀대로 ‘도둑’과 ‘절도’는 엄밀하게 유의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유의관계는 ‘도둑’과 ‘절도범’, ‘도둑질’과 ‘절도’가 각각 유의관계를 맺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나 인용 예는 유의관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고 더불어 실제 예를 필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므로 그대로 밝히는 바이다.

(21ㄱ)의 경우, ‘보다’와 ‘읽다’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책이나 신문 따위를 읽’는 것도 ‘보다’라고 할 수 있으나 (21ㄱ)에서 ‘읽다’는 ‘보다’가 의미할 수 있는 것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화자가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다. 대개 이런 용법은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문장 구조에서 의미의 명세와 정교화가 드러난다.

그러나 이들이 항상 구별되는 비중첩 의미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22) ㄱ. 시계를 보고 읽는 능력은 인지가 발달하여 어느 순간이 되면 분명 누구나 알게 되는 지식이자 능력이다.

나. 운동과 체육에 대한 공포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커져만 갔었다.

(22)의 경우와 같이 이들은 의미 중첩된 부분을 바탕으로 ‘강조’의 의미 기능을 하기도 한다. 종래 어휘의미론에서는 의미의 유사성 차이가 어휘별로 나타난다고 보고 어휘 내적으로 인지적 유의관계나 근사 유의관계를 나누었으나, 위와 같은 현상은 이들이 어휘별로 고정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 문장 차원에서 중첩 여부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3.1.3에서 의미가 중첩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의미 기능 중의 하나로 ‘강조’를 들었다. 그러나 오직 ‘강조’의 의미나 ‘수사적인’ 이유만으로 이러한 표현이 쓰였다고 보기에는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이는 용례의 종류와 출현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 이들은 정말 중첩된 의미만을 나타내는 의미상의 잉여 표현인가.

임채훈(2009 ㄱ:245-246)에서는 반의관계 어휘가 문장의미 생성과 해석에 있어 어떤 의미 기능을 밝히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용법을 제시하였다.

(23) ㄱ. 그 상자 안에 사과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두 싱싱했다.

나. 살아서든 죽어서든 꼭 오시오.

ㄷ. 좋은 때나 나쁜 때나 나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일 거예요.

ㄹ.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규모가 크건 작건 최종 마무리가 될 때까지 모든 절차를 꼼꼼히 챙긴다.

(23ㄱ)에서 ‘작다’와 ‘크다’는 각각 사과의 종류를 나누는 각 극점을 나타내는 말로서, ‘에서’와 ‘까지’와 어울려 상자 안에 든 사과 전체를 지칭하게 된다. 이는 후행하는 ‘모두’와 호응한다. (23ㄴ)에서 ‘살아서든 죽어서든’ 역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각 극점으로서 기능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라는 의미로, 상황 전체를 의미하게 된다. ‘전칭’의 경우는 어떤 대상의 전 영역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데, 반의관계가 갖는 양극성이 역으로 전 영역을 가리킬 수 있는 의미적 토대가 된다.

유의관계 어휘가 연속하여 실현되는 것도 반드시 동일한 의미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 영역을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 기능을 하고 있다.

(24) ㄱ. ○○ 호수는 늘 물이 맑고 깨끗하여 고기가 많다.

ㄴ. 홍콩에서 계곡에 가면 물이 맑더라도 돌에 물이끼나 물때가 끼어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계곡도 있는데 황룡계곡에서는 물에 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맑고 깨끗하다.

(24ㄱ)은 우리가 앞서 살폈던 강조의 표현으로 ‘맑다’와 ‘깨끗하다’가 상호대치 가능하고 어느 한 어휘만 실현되어도 의미상의 큰 차이가 없다. 이들은 의미 중첩에 초점을 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4ㄴ)의 경우는 ‘맑다’와 ‘깨끗하다’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 홍콩의 계곡은 맑기만 한데 반하여 황룡계곡의 물은 ‘맑고 깨끗하다’는 것이다. 즉 어떤 경우에는 이들이 구별되지 않는 의미 영역을 갖고 실현될 수 있으나 중첩되지 않은 의미가 초점이 된 경우 이들이 연속하여 실현된 경우 각 유의관계 어휘가 중첩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여 의미를 더 명세할 수도 있다.

3.2.2. 결합 제약에 따른 유의 어휘 선택

유사한 내용을 나열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동일한 어휘가 반복하여 실현될 수 있으나 결합하는 어휘의 선택 제약이 존재하여 유의관계 어휘가 선별되는 경우가 존재한다.¹⁵⁾

- (25) ㄱ. 노래도 듣고 라디오도 청취하고 TV도 맘껏 보고 싶다.
- ㄴ. 원체 길눈이 어둡고 방향 감각이 둔한지라 고생이 많다.

(25ㄱ)의 경우, ‘듣다’와 ‘청취하다’가 서로 대치될 수 있으나, ‘청취하다’는 ‘의견’이나 ‘방송’ 등과 같은 것과 결합의 선택 제약이 존재한다. ‘어둡다’와 ‘둔하다’ 역시 결합하는 어휘와 선택 제약 관계가 있어 유사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대치가 가능하지 않다.

이들은 교체 가능하거나 구별되지 않은 연속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언제나 결합 제약에 따라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의미 중첩이 초점이 된 경우에도 쓰인다고 할 수 있다.

- (26) ㄱ. ○○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청취하고, 음성인식으로 말하기 연습을 했다.
- ㄴ. 그 사람은 실험 절차에 어둡고 둔한 사람이어서 논문의 실험을 자기가 재현할 수가 없었다.

(26)에서는 ‘듣다, 청취하다’, ‘어둡다, 둔하다’가 연속하여 쓰이면서 의미 중첩이 초점이 된 경우의 의미 기능 중 ‘강조’의 의미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의관계 어휘가 반드시 중첩 여부에 따라 고정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휘관계 안에서도 중첩 혹은 비중첩의 의미 기능이 문장에서 달리 나타날 수 있다.

4. 결론

이 논문은 어휘부 지식 안에 존재하는 유의 어휘관계가 문장의미의 생성과 해석에 있어 어떤 지위와 기능을 갖는지를 살피고자 하였다. 즉 유의 어휘관계가 단순히 어휘부 안에 존재하는 단어들 간의 관계만을 나타내는 것이

15)익명의 심사자의 의견대로 3.2.2에 제시된 특성은 엄밀한 의미에서 ‘유의관계 어휘’가 문장의미 형성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이기보다는 유의관계 어휘가 중첩되어 실현되는 양상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양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의관계 어휘가 실현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한 예이므로 추가로 제시한다.

아니라 문장을 생성하고 해석하는 기제와 지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유의관계 어휘가 의미적으로 중첩되는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토대로 이들이 문장 안에서 공기하여 쓰일 때 문장의미 형성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유의관계 단어쌍이 공기하고 있는 말뭉치 자료를 추출하여 살펴보았다. 유의관계 단어쌍이 갖는 의미 기능은 그것이 중첩된 의미를 토대로 하는가 아니면 중첩되지 않은 의미를 토대로 하는가에 따라 그 기능이 갈렸다. 중첩된 의미를 토대로 한 경우 1) 수사적 기제 2) 대응으로서의 지시어 3) 강조의 의미 기능 4) 부연과 환언 등의 의미 기능을 하였다. 중첩되지 않은 의미를 토대로 한 경우에는 1) 의미 명세 2) 결합제약에 따른 유의어 선택 등의 의미 기능을 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사고와 표현 편찬위원회(2005), 글쓰기의 기초, 고려대학교 출판부.
- 공용배(2004), 영상시대의 글쓰기, 나남출판.
- 김광혜(1990), “어휘소간의 의미 관계에 대한 재검토,” 국어학 20, 국어학회, 28-46.
- 김광혜(1998), “유의어의 의미 비교를 통한 뜻풀이 정교화 방안에 대한 연구,” 선청어문 2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5-40.
- 김광혜(2009), 비슷한 말, 반대말 사전, 날말.
- 김상태(2008), 글쓰기의 오류 분석, 학고당.
- 김의수(2008), “의미관계와 형태 결합 양상,” 語文論叢 49, 한국문학언어학회, 83-113.
- 김진혜(2005), “<표준국어대사전>의 관련어 정보와 어휘관계 기반 사전 기술,” 한국어 의미학 24, 한국어의미학회, 23-50.
- 김진혜(2006), “코퍼스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언어의 본질,” 한국어 의미학 21, 한국어의미학회, 75-104.
- 김충명(2008), “유의어와 반의어 간 의미자질 차이에서 비롯하는 범주특성의 신경표상: ERP 연구,” 한국어 의미학 25, 한국어의미학회, 51-69.
- 문금현(2004), “한국어 유의어의 의미 변별과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15-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65-94.
- 박영순(2001), 한국어 문장의미론, 박이정.
- 배상복(2006), 일반인을 위한 글쓰기 정석, 경향미디어.

- 신명선(2004), “유의어 변별 능력과 국어적 사고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 - ‘구분, 분류, 분석, 구별’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22, 한국어학회, 215-243.
- 양명희(2007), “국어사전의 유의어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22, 한국어의미학회, 165-184.
- 윤평현(1995), “국어 명사의 의미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35, 한국언어문학회, 91-115.
- 이광호(1993), “형태적 동일성에 따른 유의어의 변화,” *수련어문논집* 20, 수련어문학회, 117-149.
- 이광호(2009), “코퍼스를 활용한 반의어의 총체적 목록 확보 방법에 대한 연구,” *국어학* 56, 국어학회, 281-307.
- 이동혁(2004), “의미 관계의 저장과 기능에 대하여,” *한글* 263, 한글학회, 95-124.
- 이오덕(2004), *우리 말 살려 쓰기*, 하나, 아리랑나라.
- 이종열(2000), “동의어의 인지구조와 의미적 비대칭성,” *언어과학연구* 18, 언어과학회, 257-280.
- 이찬규(2002), “단어 연상에 관한 조사 연구 (2),” *한국어 의미학* 11, 한국어의미학회, 49-78.
- 임지룡(1999),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 임지룡(2008),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 임채훈(2009ㄱ), “반의관계와 문장의미 형성,” *한국어 의미학* 30, 한국어의미학회, 231-256.
- 임채훈(2009ㄴ), “반의관계에 의한 문장의미 형성과 어휘의미 확장,” 제52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85-97.
- 千時權·金宗澤(1996), *國語意味論*, 螢雪出版社.
- 최경봉(2010), “계열적 의미관계의 특성과 연구 목표 - 유의 및 반의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49, 한국어학회, 65-90.
- 최상진(1999), “문장의미 구성요소의 의미관계에 대하여,” *어문연구* 10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7-23.
- 최형용(2007), “동의 충돌에 따른 의미 변화의 한 양상에 대하여,” *국어학* 50, 국어학회, 329-355.
- 최형용(2008), “국어 동의파생어 연구,” *국어학* 52, 국어학회, 27-53.
- 최홍열(2005), “‘모자라다’ 유의어의 의미고찰,” *한국어학* 29, 한국어학회, 257-284.
- Aitchison, J. (1994), *Words in the mind* (2nd ed.). Oxford: Blackwell.
- Bickerton, D. (1995), *Language and Human Behavior*. The Univ. of Washington Press.
- Cann, R., R. Kempson & E. Gregoromichelaki (2009), *Semantic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ffin, R., D.J. Hermann, & M. Winston (1988), *A taxonomy of part-whole*

- relation. *Cognitive and Language* 3, pp.1-32.
- Chisholm, Roderick M. (1976), *Person and Object*, London: George Allen & Unwin.
- Cruse, D. A. (1986), *Lexical Semantic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임지룡·윤희수 譯 (1989), 어휘의미론, 경북대학교 출판부.]
- Fellbaum, C. (ed.) (1998), *WordNet: an electronic lexical database*. Cambridge, MA: MIT Press.
- Jackson, H. (1988), *Words and Their Meaning*, New York: Longman.
- Justeson J. S. & Katz, S. M. (1991), "Redefining Antonymy: The Textual Structure of a semantic Relation," *Literary and Linguistic Computing* 7, pp.176-184.
- Lyons, J. (1977), *Semantics (2 vol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rphy, M. Lynne (2003), *Semantic relations and the lexicon: antonymy, synonymy, and other paradigm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임지룡·윤희수 譯 (2008), 의미관계와 어휘사전, 박이정.]
- Nida, Eugene A. (1975), *Componetial Analysis of Meaning*, The Hague: Mouton.
- [조항범 譯 (1994), 의미분석론, 탑출판사.]
- Ullmann, S. (1962), *Semantics: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Oxford: Basil Blackwell.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 연구관 110호
 전화 번호: (02) 820-0333
 전자 우편: linguist@ssu.ac.kr

원고 접수일: 2011년 2월 23일
 원고 수정일: 2011년 4월 6일
 게재 결정일: 2011년 4월 13일